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가능세계 개념은 양상에 관한 표준적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해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양상 개념을 양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P가 참이다”와 “P가 가능하다”는 서로 다른 수준의 양화성을 보인다. 전자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P가 참임을, 후자는 어떤 가능세계에서 P가 참임을 의미한다. 표준적 해석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시제 문장과도 관련이 깊다. 가령 “P였다”는 과거에 어떤 시간 t에서 P가 참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거리가 먼 가능세계에 존재론적 위상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장 간 차이가 있다. 루이스는 현실과 동일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능세계에 부여한다. 반면에 양상주의는 그러한 위상을 가능세계에는 설정하지 않으며, 가능세계에는 잠재적 참만이 보장될 뿐이라 주장한다. 가능세계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현실과 다른 존재론적 위상을 부여하는 대체주의도 있다. 가능세계의 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권이 현실세계에 있다는 것이다. 양상주의자와 대체주의자들은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현실세계 뿐이라는 현실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입장별 차이는 두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로 확장된다. 루이스와 같은 양상실재론자들은 현실세계의 개체, 예컨대 a와 가능세계의 a 사이의 관계가 대상이 지닌 속성의 차이 때문에 기껏해야 유사한 정도라고 말하지만 어떤 대체주의자는 두 대상 간 동일성을 인정한다.

가능세계와 가능세계의 대상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는 시간과 시간 속의 대상에 관한 논의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밑바탕이 되는 것은 ㉠ 위상의 존재성이 대상의 실재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 시간의 실재성을 판단할 때 존재론적 위상을 따져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환원주의에 따르면 현재는 어떠한 형이상학적 특권도 가지지 않는다. 환원주의를 기반으로 영원주의자들은 위상의 존재가 대상의 실재를 결정한다는 관점을 수용하여 현재가 아닌 시간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원주의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존재론적 위계 속에서 어떠한 차이도 갖지 않는다. 반대로 현재주의에 따르면 실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 뿐이다. 과거는 더 이상 실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다. 블록 이론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는 실재하나 미래는 그렇지 않다. 또한 스포트라이트 이론은 영원주의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실재하지만 그 중 현재만이 형이상학적 특권을 누린다는 이론이다.

현재주의가 영원주의보다 우리의 직관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 현재주의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주의에 따르면 과거나 미래의 사건 내지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상식적으로 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주의를 수용하면 현재 시점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라는 존재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라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정합성은 현재주의를 기술할 때 암묵적으로 어떠한 영원주의적 요소를 상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주의

에 스포트라이트 이론을 끼워넣는 것도 현재주의에 영원주의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주의는 더 이상 현재주의가 아니게 된다. 어떤 이들은 현재주의가 갖는 난점이 블록 이론과 스포트라이트 이론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내적 비정합성을 갖는 이론들은 시간에 관련한 고려의 대상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선호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이 차원주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현재주의 뿐만 아니라 블록 이론과 스포트라이트 이론도 이해 가능한 이론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1. [A]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양상에 관한 표준 해석에 따르면 “P일 것이다”는 임의의 시간 t에서 P가 참임을 뜻한다.
- ② 루이스는 현실의 존재 방식과 다른 가능세계가 관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 ③ 양상실재론은 두 대상의 속성이 완전히 동일하면 그것은 본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 ④ 어떤 세계에 존재론적 위상이 보장되기만 하면 그 세계는 진정한 의미로 존재한다는 관점에 대해 대체주의자들 중 일부는 반대하지 않는다.
- ⑤ 루이스, 양상주의자, 대체주의자는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다고 본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존재론적 위상이 존재하면 대상이 실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상이 실재한다고 해서 존재론적 위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 ② ㉡로부터 존재론적 위상이 부여되지 않는 시간에서는 그 시간 속의 대상도 실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③ 환원주의와 영원주의는, 현재가 아닌 시간과 현재가 어떠한 형이상학적 특권도 가지지 않는다는 데서 견해가 일치한다.
- ④ 현재주의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⑤ 영원주의와 블록 이론은, 스포트라이트 이론과 달리 존재론적 위상의 수준에 따라 대상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의의 시간 t 에 대해 t 이후의 시간 t' 에 대해서, t' 에 존재했던 사건들이 t 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현재주의가 갖는 난점 중 하나이다.
 - ② 영원주의가 현재주의의 일부가 되든 현재주의가 영원주의의 일부가 되든 내적 비정합성이 나타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 ③ 블록 이론과 스포트라이트 이론을 결합하면 현재주의가 갖는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비정합성을 갖는 것만으로 시간에 관련한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영원주의보다 현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볼 것이다.
 - ⑤ 이차원주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현재주의를 납득할 수 있는 이론으로 탈바꿈하려는 입장은 현재주의의 난점이 해결가능하지만 그것이 선호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